
THE KOREAN CRIMINOLOGIST



MARCH 2026

재미한인범죄학회 2026 봄호 뉴스레터

ADVANCING CRIMINOLOGY THROUGH COLLABORATION, INNOVATION, AND GLOBAL ENGAGEMENT

안녕하십니까? 재미한인범죄학회 회원 여러분!

재미한인범죄학회 9대 회장으로 봉사하게 된 김혜선입니다. 저명하고 우수한 한인범죄학자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2년간 KOSCA를 위해 봉사할 수 있게 되어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학회는 현재 현직 교수님들과 석·박사 과정 학생들을 포함하여 약 100여 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2009년 창립 이래, 임원진과 회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꾸준한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또한 American Society of Criminology 내에서 ethnic group을 기반으로 설립된 최초의 학회 중 하나로서, 상당한 인지도를 갖춘 학회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비록 규모는 크지 않으나, 그 영향력에 있어서는 매우 의미 있는 단체라 할 수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끊임없는 연구 활동과 연구 실적, 그리고 criminal justice 분야에서의 전문적인 봉사 활동은 오늘날 재미한인범죄학회의 위상과 한인 범죄학자들의 학문적·전문적 지위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제가 회장으로 봉사하는 동안, 선대 임원진들과 여러분들이 이루어 오신 성과를 더욱 빛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9대 임원진은 (1) 회원 간 소통 및 친목 증진 (2) 한국과의 학술 교류 확대 (3) 재미 한인 사회의 범죄 예방을 주요 우선 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첫째로, 회원 간의 소통과 친목을 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학회 행사를 회원 참여 중심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께서 주체가 되어 서로 소통하고 경험을 나눌 수 있는 KOSCA 행사를 마련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본 학회 회원들의 연구 성과와 학문적 업적을 한국에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나아가 한미 공동연구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한국의 연구단체 및 학회와 공동학술대회를 기획하였습니다. 본 공동 학술대회를 한국에서 개최함으로써, 한미 학술교류가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본 학술대회의 프로그램으로 한국 학생들에게 범죄학 및 관련 분야의 유학을 독려하기 위한 유학 설명회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학교도 이 설명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미한인범죄학회는 한인사회의 범죄 예방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범죄학적 지식과 전문성을 한인사회와 나눔으로써 범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범죄 예방에 기여하는 것은 한인 범죄학자로서 저희가 수행해야 할 당연한 사명입니다. 이러한 사명에 회원 여러분께서도 함께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 2년간, 저희 임원진이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과제에 회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재미한인범죄학회가 한국에는 미국의 연구를 전파하는 학문적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미국 내에서는 한인사회의 보호와 안전에 앞장서는 단체로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제9대 회장 김혜선 드림

CONTENTS

<u>ASC 2025 현장소식</u>	03
<u>학술 분과 보고</u>	08
<u>회원 소식</u>	11
<u>특별기획: 우리들의 유학 이야기</u>	14
<u>공지사항</u>	18
<u>후원사 및 광고</u>	20
<u>KOSCA 임원진</u>	22
<u>KOSCA 디비전</u>	23

ASC 2025 현장 소식

KOSCA-KICJ 공동 라운드테이블: AI 기반 재범예측 VS 전통적 평가도구 (신뢰, 한계, 윤리)

본 라운드테이블은 Washington, DC에서 개최된 America Society of Criminology (ASC) 학회 기간 중 KOSCA Annual Meeting의 시작을 알리는 첫 세션으로, KOSCA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KICJ)이 함께 마련한 학술 교류의 장이었습니다. KOSCA는 KICJ와 함께 AI 기반 재범예측과 전통적 위험성 평가도구를 둘러싼 신뢰성, 한계, 윤리적 쟁점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비교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세션에는 KICJ 측 주요 관계자들이 현장에 참석해 논의에 힘을 보탰으며, 특히 최지선 (Dr. Jisun Choi,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성유리 (Dr. Yoori Seong,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를 중심으로 AI 기반 재범예측의 가능성과 함께 신중히 검토해야 할 위험요인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적 평가도구의 타당도, 현장 적용성, 윤리적 고려사항이 균형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KOSCA에서도 여러 회원들이 함께 참여해 토론은 예측모형의 투명성 및 설명가능성, 데이터 품질과 표본 편향, 집단간 공정성과 차별 위험, 오류 발생 시 책임소재와 거버넌스, 그리고 현장 의사결정에서 보조도구로서의 적정 역할로 확장되었습니다. 또한 단순한 정확도 지표만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윤리적 비용 (낙인, 과잉개입, 불평등 재생산 위험 등)을 어떻게 평가 및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외부 토론자로는 Dr. Raymund Narag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교수와 Marlon Moneva (Supreme Court of the Philippine) 판사가 참여하여, 연구 성과가 정책과 사법 실무로 이어질 때 요구되는 절차적 정당성 및 판단 근거의 제시 가능성, 책임성의 관점에서 논의를 한층 풍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KOSCA-KICJ 공동 라운드테이블은 국제적, 학제적 협력을 바탕으로 AI 시대 형사사법의 책임 있는 혁신을 모색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었으며, 향후 관련 연구와 정책 대화의 지속적 확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KOSCA BMKS 장학, 어워드 학생 발표: 디지털 시대의 약물 범죄, 범죄감소, 비행 이해

이 패널은 디지털 환경의 확장 속에서 약물범죄, 범죄감소, 그리고 비행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할 것인가를 핵심 주제로 삼아, 다크웹 및 가상자산 기반 범죄시장, 현대적 Community Oriented Policing (COP)의 과제, 그리고 이론적 접근의 확장 가능성을 폭넓게 다루었습니다. 특히 발표자들은 Student Award–Beauty Master KOSCA Scholarship (BMKS) 수상자로 선정되어, 연구의 독창성과 기여 가능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올해 BMKS 학생상 수상자는 다음 세 명의 발표자이며, 아래에서 각 발표의 핵심 내용을 간략히 소개합니다.

발표 1) 트렌드: 다크웹 약물시장과 가상자산 보안 동향—사이버범죄자는 어떻게 ‘스캠’을 피하는가 정보라 (Bora Jung, University of Nevada–Las Vegas) 백승철 (Dr. Sinchul Back, University of Scranton)

본 연구는 암호화폐가 다크웹 마약시장에서 제공하는 익명성이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사기와 보안 위협을 증폭시킨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연구팀은 주요 다크웹 마켓플레이스 4곳에서 수집한 316건의 사례를 바탕으로, 2021년 이후 강화된 법집행과 시장 내부 사기에 대응해 거래 및 보안 구조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분석했습니다. 분석에는 암호화폐 종류, 결제 보안 방식, 사용자 보안 조치의 차이가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주요 논의는 2021년 이후 추적이 어려운 모네로 (Monero)의 사용이 크게 증가했으며 (55%→86%), 다중서명 거래와 지갑 없는 결제 방식이 급격히 확산되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PGP 암호화, DDoS 방어, 이중인증 등 사용자 보안 조치가 전반적으로 강화되었고, 공개 지갑 주소 노출은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23%→1%). 발표는 이러한 변화를 일상활동이론 관점에서 법집행과 사기 위험에 대한 시장의 적응 전략으로 해석하며, 특히 다중서명 거래 추적 기술 개발과 법집행 인력의 기술 전문화, 국가 간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발표 2) 현대 COP의 도전과 기술적 해결책: 왜 COP는 기대만큼 범죄감소에 성공하지 못했는가 Amy Lim (University of Nevada–Las Vegas) 이재승 (Dr. Jae-Seung Lee, Miami University)

본 연구는 COP 프로그램이 널리 시행되에도 범죄감소 효과가 제한적이었던 이유를 시민참여의 작동 방식에서 재검토하고자 했습니다. 연구팀은 미국 중서부 한 도시의 COP 회의에 참여한 활동 주민 176명 설문자료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경찰에 대한 태도가 어떤 요인에 의해 형성되는지 분석했습니다. 분석에는 구조방정식모형 (SEM)이 활용되었으며, 만족도, 범죄두려움, 무질서 인식, 집합효능감, 피해경험, 인구사회학적 특성, 경찰과의 접촉 경험 등이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주요 논의는 COP가 현실에서 겪는 구조적 한계, 특히 참여의 편향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즉 COP 참여가 상대적으로 고연령층 또는 경찰에 우호적인 시민에게 집중될 경우, 프로그램이 범죄감소로 연결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발표는 이러한 함의를 바탕으로, 특히 청년층과 범죄영향이 큰 지역사회를 포함해 참여의 폭을 넓히는 전략과, 다양한 시민의 경험과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참여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발표 3) 생애 변화와 스트레인: 일반긴장이론 (GST)의 생애과정 연구 적용 가능성 홍순민 (Sunmin Hong, University of Texas–Dallas) 한성일 (Dr. Sungil Han,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rlotte)

본 연구는 일반긴장이론과 생애과정 범죄학 관점을 바탕으로, 긴장과 비행행동 간 관계가 발달 단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했습니다. 연구팀은 한국의 전국 대표성을 지닌 패널 데이터 2개 파동을 활용해 청소년기와 성인초기를 비교했습니다. 분석에는 회귀분석과 Blinder–Oaxaca 분해 기법이 사용되었으며, 부모 관련 스트레스, 경제적 스트레스, 외모 스트레스, 또래 스트레스 등 다양한 긴장 요인이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주요 논의는 청소년기가 성인초기에 비해 스트레스 수준과 비행 수준이 모두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부모 관련 스트레스, 경제적 스트레스, 외모 스트레스는 청소년기에만 비행을 예측하고 성인초기에는 그 효과가 사라졌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반면 또래 스트레스는 성인초기에도 여전히 유의미한 영향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분해 분석 결과, 비행 감소는 긴장 노출의 감소보다는 긴장에 대한 반응 방식의 변화에 의해 주로 설명되었습니다. 발표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기 비행 예방이 단순한 스트레스 감소를 넘어 발달 단계에 맞는 대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세 발표는 디지털 범죄환경, 지역사회 치안, 그리고 생애과정 관점의 이론 확장이라는 서로 다른 지점에서 향후 연구와 정책 논의에 의미 있는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BMKS 학생상 수상자들의 성과에 축하를 전하며, 발표자들의 후속 연구에도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관련 주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발표 내용과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발표자들과 질의-토론을 이어가거나, 공동연구 및 자료 공유 등 다양한 형태의 학술 교류를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BMKS 학생상은 매년 학생 회원들의 지원을 받고 있으니,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확장하고자 하는 학생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AMY LIM (PH.D. STUDENT, POLICING AND PUBLIC SAFETY DIVISION MEMBER, UNIVERSITY OF NEVADA-LAS VEGAS)



BORA JUNG (PH.D. STUDENT, CYBERCRIMINOLOGY DIVISION MEMBER, UNIVERSITY OF NEVADA-LAS VEGAS)



SUNMIN HONG (PH.D. STUDENT, CRIMINOLOGICAL THEORY AND JUVENILE JUSTICE DIVISION MEMBER, UNIVERSITY OF TEXAS-DALL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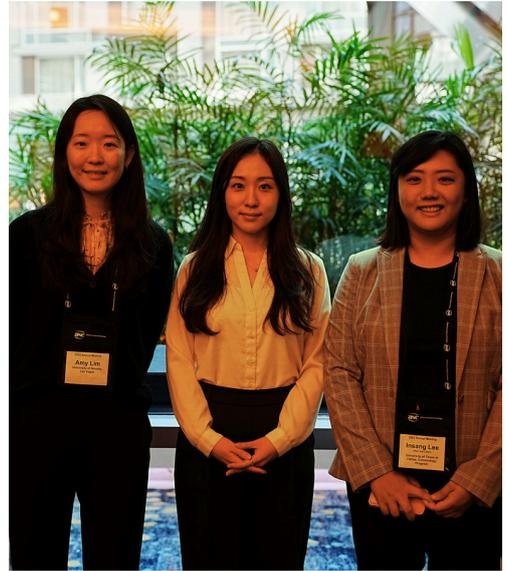
이 장학금은 박형권 (MR. HYOUNG-GWON PARK), BEAUTY MASTER CEO, KOSCA DONOR & HONORARY ADVISOR, 그리고 KOSCA SCHOLARSHIP의 설립자의 지속적인 후원으로 매년 제공되고 있습니다. BMKS는 학생들의 연구 참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학생과 KOSCA 회원 간 연구 협력과 학술 활동 참여를 독려하는 중요한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KOSCA STUDENT MEETING: 학생분과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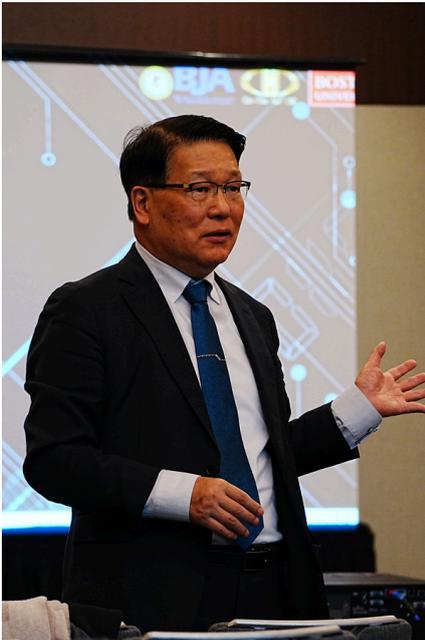
KOSCA Student Meeting 행사는 학생분과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함께, KOSCA 내에서 학생분과가 수행하는 역할을 설명하는 시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어 이번 임기부터 새롭게 학생분과장을 맡게 된 임에이미 (Amy Lee, University of Nevada, Las Vegas)와 이인상 (Insang Lee, University of Texas, Dallas) 학생분과장을 소개하고 인사를 나누는 순서가 마련되었습니다.

두 학생분과장은 새로운 임기 동안 KOSCA 학생회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활동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운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이메일과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활용해 Scholarship Award 등 학생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함으로써, 학생 참여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는 두 학생분과장에게 회원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학생분과 활동에 많은 참여와 격려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KICJ) 축사와 함께한 공식 연례회의



KOSCA Annual Meeting은 ASC 현장에서 KOSCA 구성원과 특별 초청 인사가 함께 모여 한 해의 활동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의 방향을 확인하는 공식 연례회의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요 내빈 소개와 환영 인사, 위원회별 업무 보고 등 KOSCA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는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KICJ) 정웅석 (Dr. Woong-Seok Jeong) 원장의 축사가 있었으며 정책 기관과 학회 간 협력의 의미를 다시 한 번 환기했습니다. 축사에서는 형사사법 분야에서의 최신 이슈와 연구 기반 정책 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KOSCA와 KICJ 간 교류가 향후 더욱 확대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어서 KICJ는 한국에서 범죄학 및 형사법무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연구주제의 다양성, 연구자 친화적인 환경, 그리고 정책적 파급력 등 연구 범위를 한국으로 확장할 때의 장점을 소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에서의 연구 수행이 제공하는 실질적 기회와 이점을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INTRODUCE LINER (AN AI RESEARCH TOOL)

라니어 (Liner)는 AI 기능을 통해 학술 자료의 핵심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AI 기반 연구 지원 도구입니다. KOSCA Annual Meeting에서 Liner는 활용을 시연하며, 연구 주제 탐색, 문헌 검색, 요약, 자료 정리 등에서 해당 도구가 연구자의 시간을 절약하고 작업 흐름을 단순화할 수 있음을 실제 예시를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특히 연구 설계와 문헌 검토 단계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KOSCA와 Liner는 관련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과 상호 발전을 위한 교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KOSCA, 2025 학술 성과 및 특별 공로 시상

KOSCA는 2025년 시상을 통해 뛰어난 학술 성과와 학회 발전에 대한 공로를 함께 기렸습니다. Faculty Research Award는 탁월한 연구 기여를 인정받은 표지민 (Dr. Jimin Pyo, California State University, Northridge) 교수에게 수여되었습니다. Junior Faculty Award는 젊은 연구자로서의 성과와 성장 가능성을 보여준 한성일 (Dr. Sungil Han,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rlotte) 교수가 수상했습니다. 또한 Special Contribution Award는 학회 운영과 장학 활동을 꾸준히 지원해 온 박형권 (KOSCA 명예 고문, KOSCA 장학금 설립자, Beauty Master CEO)에게 수여되어 그 공로를 기렸습니다.



HYOUNG-GWON PARK
(KOSCA HONORARY ADVISOR,
FOUNDER OF KOSCA
SCHOLARSHIP, CEO OF
BEAUTY MASTER)



DR. JIMIN PYO
(CALIFORNIA STATE
UNIVERSITY, NORTHRIDGE)



DR. SUNGIL HAN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RLOTTE)

앞서 소개한 연구 성과를 기리는 시상과 발표에 이어 학회 운영을 위해 헌신한 임원진을 기리는 Executive Board Officer Award를 통해, 지난 2024-2025년 KOSCA 운영과 학술 활동을 든든히 뒷받침해 온 리더십의 노고를 함께 확인했습니다.

DR. STEPHANIE MIZRAHI: SPECIAL GUEST & PRESIDENT OF ACJS

이번 KOSCA 리셉션에는 Academy of Criminal Justice Sciences (ACJS) 회장인 Dr. Stephanie Mizrahi가 특별 게스트로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Dr. Mizrahi는 축하 인사를 전하며, 형사사법 분야에서 KOSCA가 수행해 온 학술적 기여를 높이 평가하는 한편, 앞으로 ACJS와의 긴밀한 협력과 적극적인 참여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학술 분과 보고

DIVISION OF CRIMINOLOGY THEORY AND JUVENILE JUSTICE

Chair: 백현인 (Dr. Hyunin Baek)
New Mexico State University
h0baek01@nmsu.edu

범죄이론 및 소년사법 분과는 다양한 이론적 관점에서 범죄 및 비행 행동의 원인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합니다. 본 분과는 학계, 실무자, 정책 입안자 간의 개방적이고 건설적인 대화, 엄격한 과학적 연구, 협력을 촉진하여 효과적이고 포괄적인 비행/범죄 행동 예방 프로그램 및 전략을 개발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본 분과 소속 연구진은 한국 자료를 활용한 공동 논문을 다수 집필하고 있습니다. 최근 두 편의 논문이 수정되어 동료 평가 저널에 재제출되었습니다. 본 분과는 청소년 비행 관련 연구 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중입니다. KOSCA 회원, 특히 학생 회원들의 연구 참여 및 협력을 적극 권장합니다.

자세한 정보 및 회원 가입 문의는 분과장인 백현인 교수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DIVISION OF POLICING AND PUBLIC SAFETY

Chair: 한성일 (Dr. Sungil Han)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rlotte
shan27@charlotte.edu

Policing and Public safety 분과에서는 다양한 연구 및 학술활동을 통하여 전문적 네트워킹을 지향하고 이를 통해 경찰활동 및 공공안전에 대한 전문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찰을 포함하는 사법기관에 대해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 및 변화등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경찰 실무자와 연구자 간의 협력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분과는 회원들이 여러 공동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학술대회 혹은 소셜 미디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자신의 전문성을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경찰활동 및 공공안전에 관심이 있는 모든 연구자와 실무자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활발한 연구 참여 및 학술교류를 원하시는 KOSCA회원분들은 한성일 교수 (shan27@charlotte)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DIVISION OF KOREAN COMMUNITY AND CRIMINAL JUSTICE

Chair: 최신용 (Dr. Sinyong Choi)
Kennesaw State University
Schoi35@kennesaw.edu

Division of Korean Community and Criminal Justice는 현재 케네소 주립 대학교로 부터 12,045달러의 연구비를 지원받은 Examining and Explaining Public Attitudes Toward Polic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A Comprehensive Model of Public Perception Formation 과제를 을 포함하여, 선도적인 연구 활동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에 합류할 열정적인 분들을 적극적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연구 범위는 미국 내 한인 사회뿐만 아니라 형사사법 분야의 다양한 현대적 이슈들을 폭넓게 아우르고 있습니다. 본 분과의 활동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은 분과장인 최신용 교수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DIVISION OF WOMEN AND GENDER

Chair: 김춘례 (Dr. Chunrye Kim)
Saint Joseph's University
ckim@sju.edu

저희 여성과 젠더 분과 (Division of Women and Gender)는 범죄, 사법, 그리고 범죄 처리 체계의 연구에서 젠더 평등과 여성의 역량 강화와 관련된 관심사와 이슈를 다루는 데 관심 있는 모든 회원을 하나로 모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분과의 주요 목적은 해당 분야에서 여성 및 젠더 이슈와 관련된 연구와 정보 교류를 촉진하고 증진하는 한편, 여성·젠더·범죄 관련 교과목을 위한 효과적인 교수 전략과 교육과정을 개발하는데 있습니다.

DIVISION OF AI AND CRIMINAL JUSTICE

Chair: 박형아 (Dr. Hyoungah Park)
Saint Peter's University
hpark1@saintpeters.edu

AI & CJ Division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현대 형사사법 체계가 직면한 복합적 과제를 연구하며, 기술 발전과 인권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법치주의적 미래를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머신러닝 기반 범죄·재범 예측과 스마트 범죄 지도, AI-CCTV, 이상 행동, 음향 인식 등 예측 분석을 통해 공공 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생체 인식과 디지털 포렌식, 사이버 보안을 활용한 신원 확인 및 수사 효율화, LPR과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추적, 모니터링을 다룹니다. 또한 알고리즘의 공정성, 투명성 (XAI), 편향 완화를 중심으로 한 신뢰 가능한 AI 거버넌스와 사법 행정의 자동화, 최적화, 그리고 AI 도입의 사회, 법적 영향을 평가하는 사법 혁신 연구를 핵심으로 합니다.

우리 Division은 이론적 연구와 실천적 협업이 균형을 이루는 역동적인 커뮤니티로서, 회원들이 정기적인 스터디 모임을 통해 최신 AI 기술과 형사사법 분야의 동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동시에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학계와 현장 전문가가 협력하여 실제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학제적 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DIVISION OF CYBER CRIMINOLOGY

Chair: 최신용 (Dr. Sinyong Choi)
Kennesaw State University
Schoi35@kennesaw.edu

저희 사이버 범죄 분과는 사이버 범죄 및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국제적인 협력과 학술적 담론을 발전시키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보스턴 경찰국의 후원을 받아 진행 중인 SHIELD 프로젝트 (Seniors Harnessing Internet Education for Lasting Defense)를 비롯하여 2026 국제 화이트햇 컨퍼런스 등 다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분야에서 학술적 교류에 기여하고 저희 네트워크에 동참하실 학자, 실무자, 그리고 학생 여러분을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본 분과의 활동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은 분과장인 최신용 교수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소식

GLOBAL PERSPECTIVES ON SEX OFFENDING (2026년 1월 출간)

KOSCA는 Global Perspectives on Sex Offending이 2026년 1월 출간 되었음을 기쁜 마음으로 전합니다. 본 단행본은 손지선 (Dr. Jiseun Sohn, Southern University and A&M College) 교수가 공동 편집으로 참여한 학제적 연구서로, 성범죄 연구를 글로벌 관점에서 폭넓게 조망하며 여러 KOSCA 회원들의 전문성이 각 장에 담겼습니다.

특히 김혜선 (Dr. Hyesun Kim, Worcester State University) 교수는 Chapter 3에서 성범죄자의 심리 (Psychology of Sex Offenders)를 다루고, 노혜선 (Hyeseon Noh,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박사는 Chapter 2에서 성범죄 이론 (Theories of Sex Offending)의 기초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Chapter 4에서는 최신용 (Dr. Sinyong Choi, Kennesaw State University) 교수와 Dr. Lisa Thompson (Kennesaw State University) 교수가 기술과 성범죄의 연관성을 현대적 쟁점으로 다루었으며, Chapter 8에서 구도윤 (Dr. Doyun Koo, University of Memphis) 교수는 아시아 국가들의 성범죄 특성을 분석해 국제적 맥락을 확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Chapter 11에서 손지선 교수와 김혜진 (Hyejin Kim,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박사는 한국과 서구 국가에서의 아동 대상 성범죄를 비교 검토하며, 가해자·피해자 특성과 경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출간은 KOSCA 회원들의 연구 역량과 국제적 학술 기여를 보여주는 뜻깊은 성과이며, 향후 관련 연구와 학술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영기 교수: 부교수 승진

KOSCA는 우영기 (Dr. Youngki Woo, University of Texas Rio Grande Valley) 교수가 2025년 가을 부교수로 승진하였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간 연구, 교육, 봉사 전반에서 보여주신 꾸준한 성과와 헌신에 힘입어 이번 소식이 전해져 더욱 뜻깊습니다.

새로운 자리에서 앞으로도 형사사법 분야의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하시길 응원드리며, 향후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박형아 교수: 국제학술대회 발표소식

KOSCA는 박형아 (Dr. Hyoungah Park, Saint Peter's University) 교수가 2025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KICJ) 주최로 개최된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해 연구 발표를 진행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박 교수는 캄보디아 납치, 감금 사건으로 본 초국가적 조직범죄와 인신매매 세션에서 Toward an Adaptive Model of International Criminal Cooperation: Lessons from Field Experience in Cambodia를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캄보디아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형사사법 공조의 실천적 시사점을 공유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KOSCA 회원들의 연구 성과와 국제적 학술 기여를 보여주는 뜻깊은 사례로, 향후 관련 연구 및 학술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김문선 교수: SUNY CHANCELLOR'S AWARD FOR EXCELLENCE IN FACULTY SERVICE 수상

KOSCA는 김문선 (Dr. MoonSun Kim, SUNY Brockport) 교수가 2025년 SUNY Chancellor's Award for Excellence in Faculty Service 수상자로 선정되어 시상받았다는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 상은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SUNY) 시스템 차원에서 수여되는 영예로운 표창으로, 지속적으로 탁월한 전문적 성취와 봉사영역에서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대학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탁월성 추구를 장려하기 위해 제정된 상입니다. 김문선 교수의 이번 수상은 학문적 성과뿐 아니라 대학 및 공동체를 위한 꾸준한 봉사과 리더십이 공적으로 인정받은 뜻깊은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수상은 KOSCA 회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이 대학 현장에서 인정받은 뜻깊은 성과이며, 앞으로도 학술적 기여가 더욱 확장되기를 기대합니다.

조수정 교수: 대한범죄학회 미주지역 이사 위촉

KOSCA는 조수정 (Dr. Sujung Cho,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교수가 대한범죄학회 미주지역 이사로 위촉되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앞으로 미주 지역을 대표하여 위 학회 운영과 교류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실 것으로 기대되며, 대한범죄학회의 국제적 네트워크 확장과 형사사법 분야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하시길 응원드립니다.

박형권 회장(BEAUTY MASTER) 방송소개

KOSCA 후원사인 뷰티마스터의 박형권 회장 이 KBS 설 특집 프로그램 글로벌 한 인기행 김영철이 간다에 소개되었습니다 (2026년 2월 17일 방송). 영상에서는 박 회장이 사업 초기와 1호 매장에 얽힌 이야기, 그리고 현지 한인사회와의 연결을 돌아보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관심 있는 회원들께서는 아래 링크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1호 매장의 역사를 기억하는 박형권 \[설 특집 글로벌 한 인기행 김영철이 간다\] | KBS 260217 방송](#)



코스카에 늘 따뜻한 지원을 보내주시는 박형권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유학 이야기

KOSCA 뉴스레터에서 새롭게 우리들의 유학 이야기 코너를 시작합니다. 이 코너는 유학 과정에서 마주한 현실과 적응의 순간들, 언어 그리고 문화의 장벽을 넘어선 경험, 일상 속 연구, 수업의 균형, 새로운 환경에서 멘토, 동료, 커뮤니티가 만들어 준 변화, 그리고 과거의 나에게 전하고 싶은 조언까지 회원 여러분의 진솔한 에세이와 수기를 나누는 공간입니다. 한 사람의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길잡이와 위로가 되고, 다음 도전을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아래에서는 본 코너의 첫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평범하고 물렁한 유학 이야기

박신의
신시내티 대학교 형사사법학부 박사과정 재학 중

선명하게 기억할 수 있는 어린 시절부터 나는 캐나다에 가보고 싶었다. 거창한 이유는 없다. 그저 내 인생에 처음만난 외국인이 친절한 캐나다인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작정 캐나다를 살면서 꼭 가보리라 결심했었다. 이러한 결심 때문인지 해외에 나가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졌던 것 같다. 중학생 때는 고등학교를, 고등학생 때는 대학을, 신입생일 때는 교환학생을 해외로 가보고 싶었으나 바람이 무색하게 모든 단계에서 뜻대로 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마음 한켠에 캐나다가 아니더라도 언젠가 나가리라는 다짐을 품고 살았다.

대학 이전까지 나는 공부와 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학문의 길로 가게 될 거라는 생각을 나를 포함해 주변의 누구도 하지 않았으리라 확신한다. 대학생 때 어쩌다 잘 받은 성적 덕분에 공부라는 것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때 교정학을 배우고 있었으니 이쪽 분야로 오게 된 것은 어쩌면 예정된 수순이 아니었을까 싶다. 그렇게 살면서 무얼하면 좋을지 어떤 것에 마음이 가는지 찾아가는 과정 중에 회복적 사법에 마음이 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Conflict Resolution이라는 개념에 매력을 느꼈고, 범죄학 및 교정학분야에서 이를 잘 대변하고 있는 것이 회복적 사법이었기에 자연스럽게 이것을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까지 이어졌던 것 같다. 교수님과 회복적 사법에 대해 그리고 진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대학원에 진학해야겠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때도 여전히 해외로 나가고 싶다는 마음은 변함이 없었고, 교수님도 미국유학을 고민해보라고 하셨기에 대학원을 해외로 나가고 싶다는 마음을 키웠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해외살이에 대한 무의식적인 경계심과 무지함 그리고 대학원 시스템에 대한 정보의 부재, 한국에서 더 준비되고 나가야되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 학비 및 생활비에 대한 걱정 등이 혼재하면서 한국 석사를 하고 나가야겠다는 성급한 결론에 도달했던 것 같다. 여기서 “성급함”이란 그 시절을 후회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조금만 더 세심하게 알아봤다면 쉽게 알 수 있었던 것을 놓치고 결정했다는 뒤늦은 안타까움에 대한 토로이다. 나는 한국에서 석사를 하는 동안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고, 연구라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으며, 지금 미국에서 함께 살고 있는 아내와 교제를 시작했기 때문에 일말의 후회도 없다. 다만 성급하다고 표현으로 전달하고 싶은 건 현실적인 고민과 알은 정보가 만나게 되었을 때 얼마나 좁은 시야를 갖게되는가이다. 부끄럽게도 당시에 석박통합과정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다. 해외대학원 사이트에 “석박통합과정”이라는 말이 명시적으로 없다는 점과 석사과정은 대부분 학비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소문 때문에 석사는 한국에서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석박통합이란 지원자격에 학사학위가 있는 사람을 뽑고 있다면 그게 석박통합이라는 의미라는 걸 나중에야 알았다.

어쩌면 평생 해외에 나가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사람치고는 굉장히 늦게 해외로 나온 것 같다. 그렇다고 마음이 어렵거나 불만스럽지는 않다. 이보다 이른 시점에 해외에 나오는 Counterfactual한 경우를 어차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미련을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언급했듯 한국에서의 석사생활이 내 인생에 큰 의미가 있었다는 점도 미련이 없는 데 한몫한다.

석사과정을 하면서 해외유학을 준비하는 건 상당히 어렵다. 석사과정 자체도 그리 널널하지 않은데, GRE, 유학비, 정말 유학이 내 길이 맞는가에 대한 불확실성까지도 싸워야 한다. 지원과정 자체도 모르는 것 투성이었다. 서류가 입학처로 잘 갔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제대로 작성한 게 맞는지도 확신이 없는 상태로 지원과정을 통과했다.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학원은 애초에 선택지에 없었다. 다행히 같은 시기에 유학을 준비하는 친구와 함께 석사과정을 하고 있어서, 우리끼리 유학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스터디하고 정보 공유하고 함께 준비했었다. 함께한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지원했던 모든 곳에서 떨어지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에 비해 좋은 결과를 얻었다. 교수님 및 함께하던 연구실 사람들의 도움과 이미 해외에서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교수로 임용된 선배님들의 조언도 준비하는 동안 큰 도움이 되었다. 박사라는 개념과는 어릴 때 “척척박사님께 물어봅시다”라는 노래를 흥얼거린 수준의 친밀함 이상이 없었던 내가 어찌저찌 박사과정에 입학해 미국에서 살고 있다는 현실은 가끔 묘한 기시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합격 이메일을 받고, 갈 곳을 결정하고 비행기표를 끊고, 나갈 준비를 하는 동안 미국살이와 박사과정에 대한 묘한 기대감이 들었었다. 동시에 그때는 결혼 전이어서 결혼하고 같이 나갈거나 일단 가보고 결혼시기를 결정할거냐로 여자친구와 무거운 공방을 주고 받으며 마음이 가볍기만 하진 않았던 시기이기도 했다. 결혼상대에 대한 확신은 있었지만 시기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 나도 미국이란 곳을 한번도 가본 적 없었기에 우선 경험해보고 결정하자는 쪽으로 결정했었다. (아내가 많이 배려해준 것에 감사할 따름이다). 그렇게 묘하게 붓든 마음으로 미국에 왔다.

남들에 비해 모험적인 편이라 적응에 유리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너무나도 한국과 다른 점이 많고 생소한 것뿐이라 적응에 예상보다는 더 긴 시간이 걸렸던 거 같다. 미국에 오고 약 2년 동안은 차 없이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살았다. 한국에서 매끼니를 사먹었던 내가 외식비(Tip도 큰 역할을 했다)의 무서움을 경험하고 요리를 시작하기도 했고(결국은 라면이랑 가장 친했다), 남들은 절대 걸어도 다니지 않을 거리를 걸어다니기도 하고(우버비가 때로는 더 무섭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에 불편하던 마음도 후에 필요한 다른 누군가에게 갚으라는 이들의 말을 수용하여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여전히 영어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길가다 누가 “How are you”를 물으면 어색한 긴장감이 감돌고, 재정은 예상보다 더욱 쪼들리며, 내 생각보다 학업적 성과가 더디고, 미국의 정치적 혼란으로 거주와 미래에 대한 불안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지만, 내게 지금 미국 유학생살이 어떠냐고 묻는다면 “즐겁다”고 대답할 수 있다. 상황은 내가 단숨에 바꿀 수 없어도, 마음먹는 건 그보다 할만하다. 마음을 달리 먹으면 같은 상황도 다르게 보인다. 현실적 상황을 나열하자면 행복하지 않고 즐겁지 않을 이유만 한 트릭이겠지만, 나를 믿어주고 함께 이 정글같은 상황을 헤쳐나가는 아내가 있고, 우리 가정을 어여쁘게 여겨 물심양면 도와주는 교회와 여러 사람들이 있으며,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는 친구가 있고, 이 시기를 공감하고 챙겨주는 교수님들과 선배들이 있고, 예외 없이 문이나 엘리베이터를 잡아주는 친절한 미국인들이 있는 한, 나는 따지자면 행복하고 즐거운 쪽에 가까운 미국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미국에 처음 올 때 품었던 포부에 비해 성과적으로 이룬 것은 아직 미비하지만, 이렇게 멈추지 않고 해나가다 보면 어딘가에 반드시 도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하물며 평범하디 평범한 나도 이 과정을 통과해나가고 있는데, 누군들 못할까. 나의 이 평범하고 물렁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로, 위안으로, 공감으로, 성찰로, 무언가를 향한 계기로 작용하기를...

서울에서 캔자스시티로, 8년을 돌아보며

강병구

미주리 대학교 캔자스시티 캠퍼스 형사사범 및 범죄학과 조교수

이 원고를 부탁 받고 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지난 8년 동안 나는 어떤 선택들을 하면서 서울에서 지금 거주하고 있는 캔자스시티까지 오게 됐을까? 가만히 돌아보니, 얼마 전 유튜브에서 들은 안성재 셰프의 말이 떠올랐다. “옳은 선택이란 없다. 선택을 한 뒤에 그 선택을 옳게 만드는 것뿐이다.” 생각해보면 내 유학 생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늘 그래왔다. 늘 선택의 갈림길에 서있었지만 처음부터 정답을 알고 고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대신 선택을 한뒤, 그걸 정답으로 만들려고 애써 왔다.

지금은 연구자가 나의 천직처럼 보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미국에 처음 올 때는 이 길이 나에게 맞는지 알 수 없었다. 2016년, 한국에서 석사과정에 다니던 나는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하고싶어서 GRE 학원에 등록했다. 그런데 사실 그때 나는 꼭 가고 싶은 학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함께 연구해보고싶은 교수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가서 꼭 하고싶은 연구주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좀 더 돌이켜보면 석사를 시작한 이유도 거창하지 않았다. 경찰이나 공무원 시험준비를 하기 싫던 차에 교수님들이 대학원진학을 권하셨고, 학-석사연계과정으로 3학기면 석사를 마칠수 있다는 말에 큰 고민 없이 시작했다. 석사과정에서도 범죄를 연구하는게 흥미롭긴 했지만 “이걸 꼭 해야겠다” 싶은 주제는 없었다. 그럼에도 유학까지 가려고했던 이유는 아주 현실적이었다. 한국에서 석사학위만으로는 직업을 얻기 어려울 것 같았고, 미국에서 박사를 해야 뭔가 길이 열릴 것 같다는 막연한 생각 때문이었다.

그렇게 뚜렷한 연구목표도 없이 뉴욕 올버니에 도착했다. 샘슨이 공부했던 그곳에 내가 와 있다는 벅찬 감정도 잠시, 오리엔테이션에서 동기들이 본인들의 연구 관심 분야를 술술 말하는 걸 보고 바로 작아졌다. 한명씩 돌아가며 나도 연구 관심 분야를 소개할 차례가 왔고,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저는 아직 연구관심 주제가 없습니다...” 그러자 교수님들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게 제일 똑똑한 답이다.” 그 말이 이상하게 큰 위로가 됐다. 아, 지금은 몰라도 되는구나. 지금부터 찾아가면 되는구나. 그렇게 박사생활이 시작됐고, 시작은 미약했지만, 훌륭한 교수님들과 동기들의 도움 덕분에 나는 조금씩 연구자가 되어갔다.

첫학기 이론수업에서 우연히 첫 연구주제를 만났다. 연령과 범죄의 관계를 배우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 왜 한국의 연령-범죄 곡선은 미국과 다를까. 만약 그 곡선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할 수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많은 범죄학 이론들의 전제도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것 아닐까? 그 질문이 출발점이었다. 방법론 수업과 인구학수업을 들으며 질문과 가설, 분석 방법을 조금씩 다듬어갔고, 박사논문까지 발전시켰다. 물론 한국의 범죄 연령 관계를 박사논문으로 쓰겠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말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한국 데이터로만 연구하는 한국인 연구자”로 이미지가 굳어질 수도 있다는 이유였다. 그래도 다행히 내 연구의 가능성을 믿어준 지도교수님과 많은 교수님들 덕분에 계속 밀고 나갈수 있었다. 처음부터 정답을 알고 시작한 주제는 아니었지만, 운 좋게도 그 연구는 내 첫 Criminology 게재 논문이 됐다.

내 커리어도 마찬가지로였다. 처음부터 정답을 알고 움직였다기보다, 선택을 하고나서 정답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가까웠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1년 여름, 학교재정이 어려워져 더 이상의 장학금 지원이 어렵다는 공지를 받았다. 막막했던 그날 오후, 우연히 이메일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연구소인턴 공고였다. 무슨 연구소인지 자세히 보지도 않고, 인구학 분석과 센서스 데이터를 다뤄본 사람을 선호한다는 문장만 보고 바로 지원했다. 면접 준비를 하다가 알았다. 보건인력 연구소였다. 나에게에는 완전히 낯선 분야였다. 그래도 운 좋게 합격했고, 일을 시작했다. 물론 쉽진 않았다. 새로운 분야를 따라잡는데 시간이 꽤 걸렸다. 그래도 좋은 보스와 선임 연구원들 덕분에 보건인력, 더 넓게는 공중보건연구를 접하게 됐고, 내가 해오던 범죄학 연구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연결되기 시작했다. 시간이 흘러 인턴에서 정직원으로 전환됐고 졸업 전에 직장도 얻었다. 하지만, OPT 기간이 끝나가고 비자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또 한 번 선택

의 순간이 왔다. 보건인력 분야에서 커리어를 이어갈지, 아니면 범죄학에서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할지. 연구소 일도 의미 있었지만 결국 나는 다시 범죄 연구쪽으로 가기로 결정했고, 몇몇 학교에서 면접을 봤다. 그 과정에서 알게됐다. 연구소에서의 2년 경험이 오히려 내 연구 주제를 더 넓게 보여주는 강점이 됐다는 걸. 또 하나의 예상치 못한 선택이 새로운 길을 만들어 준 과정이었다.

조교수 2년차가 된 지금도 나는 여전히 선택의 갈림길 앞에 자주 선다. 연구도 강의도 아직 서툴기에 자주 정답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돌아보면 나는 정답을 알고 시작한 일이 하나도 없었다. 유학도, 연구 주제도, 첫 직장도 모두 선택을 먼저 하고 나중에 정답으로 만들어 간 과정이었다. 그래서 요즘은 정답을 찾으려고 애쓰기보다, 일단 마음이 가는 방향으로 선택하고 움직여보려고 노력한다. 정답은 선택할 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선택한 뒤에 나에게 맞게 조금씩 만들어가는 것이니까.

KOSCA는 우리들의 유학 이야기 연재 기사를 상시 모집합니다. 경험담, 팁, 에피소드 등 자유로운 주제의 원고를 언제든지 코스카 뉴스레터팀 (Newsletter@kosca.org)으로 보내주시기 바라며, 원하시는 경우 익명으로도 게재하실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ONLINE SEMINAR (ZOOM)

KOSCA에서 2026년 4월 10일 (금요일) AI 분야의 최신 동향과 활용 사례를 주제로 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 행사 개요

- 행사명: AI와 형사사법의 현황 및 전망
- 일시: 4월 10일 (금) 오후 7시 - 9시 (미국 동부시간)
- 주최: The Korean Society of Criminology in America (KOSCA), AI & CJ Division
- Zoom 링크: <https://saintpeters-edu.zoom.us/j/84882075212>
- 문의처: 박형아 교수, Chair of AI&CJ Division (hpark1@saintpeters.edu)

■ 발표자

- 장광호 (CNAI 대표이사): 경찰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쟁점과 연구 방향
- 이병석 (순천향대 드론시큐리티 전략연구원장): 드론 테러의 현황과 중국 드론 트렌드
- 장맥스 (Liner, AI Research Tech. Co.): LLM의 이해와 범죄 예방 활용 전략

이번 세미나는 한국어로 진행되며, 세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AI와 형사사법의 현황 및 전망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자하니, 관련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한미공동학술대회 및 유학 설명회

KOSCA에서 2026년 6월 26일 (금요일) 동국대학교에서 한미공동학술대회 및 유학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오전에는 미국 유학 및 대학원 진학 정보를 제공하는 학생 세션, 오후에는 공공안전 증진 전략을 주제로 한 연구 발표 및 학술 교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행사 개요

- 행사명: 한미공동학술대회 및 유학 설명회
- 주제: 새로운 범죄와 기술·환경 변화에 대응한 공공안전 증진 전략 (Strategies for Enhancing Public Safety in Response to Emerging Crimes and Technological and Environmental Change)
- 일시: 2026년 6월 26일 (금)
 - 10:00-12:00 학생 세션 (Study in the U.S. Information Session)
 - 13:00-17:00 한미공동학술대회 (연구 발표 및 포스터 세션 예정)
- 장소: 동국대학교

■ 참여 대상

- 미국 대학원 진학을 고려하는 한국 학부생 및 대학원생
- 공공안전, 형사사법, 범죄학 분야 연구자 및 실무자
- 국제 교류 및 공동연구에 관심 있는 기관 및 대학 관계자

■ 주최

- The Korean Society of Criminology in America (KOSCA),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 셉테드학회, 대한범죄학회, 치안정책연구소

■ 프로그램 하이라이트

학생 세션 (10:00–12:00)

- 미국 대학원 (MA/PhD) 과정 구조 및 입학·지원 절차 안내
- 재정지원 및 조교십 (Assistantship) 정보 제공
- 유학 경험 발표 (4명), 패널 토론 및 질의응답
- 13:00–14:00 School Booth Visit: 대학별 부스 상담 및 자료 제공
- 14:00–15:00 Individual Clinic: 1:1 맞춤형 진학 상담

한미공동학술대회 (13:00–17:00)

- Emerging Crimes 및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공공안전 전략 논의
- 연구 발표 및 토론 세션 운영
- 발표자 및 토론자 제안 접수 중 (참여 희망자 환영)

■ 참여 안내

- 행사 자료집 내 기관 광고 및 홍보 페이지 제공
- 브로셔 및 모집 자료 부스 비치 가능
- 선택적 기관·프로그램 소개 발표 기회 제공
- 부스 운영을 위한 통역 및 현장 스태프 지원

■ 참가·스폰서·발표 및 토론 제안 문의

- 문의처: 조병준 교수, bcho@westfield.ma.edu

본 학술대회에서는 최근 대두되는 새로운 범죄 양상과 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안전 전략을 공유하며, 한미 간 학술 교류와 협력의 폭을 넓히고자 합니다. 또한, 이번 행사는 150명 이상의 한국 학생을 대상으로 진학 정보를 제공하고 우수 인재 리크루팅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US-KOREA CONFERENCE (UKC)

2026년 8월 5일부터 8일까지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개최되는 제39회 한미 과학·기술·기업가정신 학술대회 (UKC 2026) 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UKC 2026은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 (KSEA) 창립 55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되며, 학계, 산업계, 정부 및 연구기관의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글로벌 협력과 혁신을 증진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 행사 개요

- 행사명: 제39회 한미 과학·기술·기업가정신 학술대회 (The 39th U.S.–Korea Conference on Science, Technology, and Entrepreneurship, UKC 2026)
- 일시: 2026년 8월 5일(수) ~ 8월 8일(토)
- 장소: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 Omni Hotel Orlando at ChampionsGate
- 주최: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 (Korean–American Scientists and Engineers Association, KSEA)
- 주제: From Imagination to Innovation – Into Reality
- 문의처: ukc@ksea.org/ (703) 748-1221

후원사 및 광고



MR. SEAN PARK
PRESIDENT OF BEAUTYMAS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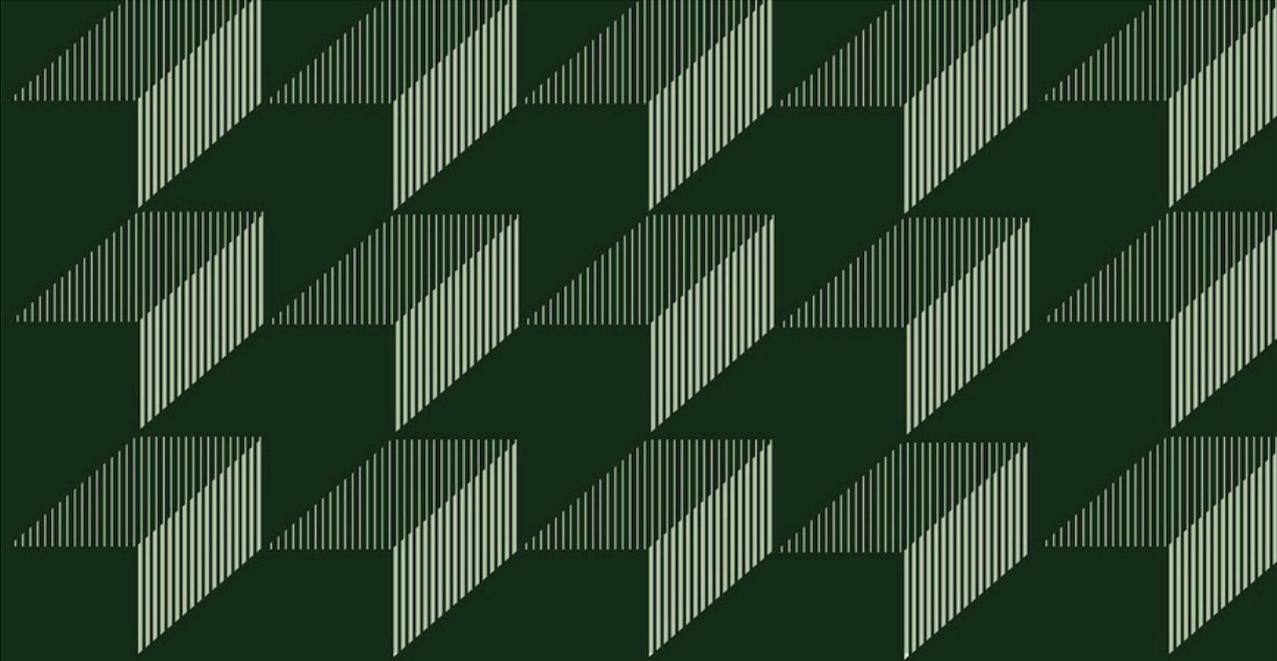


KOREAN-AMERICAN SCIENTISTS AND ENGINEERS ASSOCIATION (KSEA)



LINER INC.
AI FOR RESEARCH WITH RELIABLE, CITABLE SOURCES

여러분의 지속적인 후원과 협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Liner**

Write papers faster with
AI Agents
built for
Reserach

From shaping ideas to publication,
Liner Research Agents help you break through
the biggest hurdles in writing research papers.



KOSCA COMMITTEE

KIM, HYESUN

President | 김혜선
hkim3@worchester.edu
Worcester State University

PARK, HYOUNGAH

Vice President | 박형아
hpark1@saintpeters.edu
Saint Peter's University

SONG, JUYOUNG

Executive director & Treasurer | 송주영
juyoung81@gmail.com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KIM, SEOKBEOM

Membership | 김석범
sekim@westfield.ma.edu
Westfield State University

KIM, CHUNRYE

Constitution & Bylaw | 김춘례
ckim@sju.edu
Saint Joseph's University

LEE, HANNARAE

Program-Chair | 이한나래
h2lee@bridgew.edu
Bridgewater State University

NOH, HYESEON

Program | 노혜선
hnoh@email.sc.edu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YU, SUNG-SUK

Award | 유성숙
syu@jjay.cuny.edu
John Jay College of CJ

CHO, BYUNG JUN

International-Chair | 조병준
bcho@westfield.ma.edu
Westfield State University

CHO, SUJUNG

International | 조수정
sujung.cho@siu.edu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LEE, SEUNGEUN

Webmaster | 이승은
claire_lee@uml.edu
University of Massachusetts Lowell

LEE, INSANG

Student | 이인상
insang323@hanmail.net
University of Texas, Dallas

LIM, AMY

Student
ahlim@bu.edu
University of Nevada, Las Vegas

CHOI, MYUNGHYUN

Editorial Team Chief Editor | 최명현
myunghyunchoi@ucmo.edu
University of Central Missouri

KIM, SOHEE

Editorial Team | 김소희
skim@wtamu.edu
West Texas A&M University

LEE, JAEBOM

Editorial Team | 이재범
Jaebom.lee@utdallas.edu
University of TX, Dallas

KO, NAYOUNG

Editorial Team | 고나영
nayoung.ko@wsu.edu
Washington State University

PARK, SINUI

Editorial Team | 박신의
park4s2@email.uc.edu
University of Cincinnati

SHIN, CHANWOO

Editorial Team | 신찬우
cwshin@bu.edu
Boston University

DIVISIONS

BAEK, HYUNIN

Criminological Theory and Juvenile Justice | 백현인
 h0baek01@nmsu.edu
 New Mexico State University

전현정	hcheon@utep.edu
한성일	shan27@charlotte.edu
이세례	selee@astate.edu
문병욱	byongook.moon@utsa.edu
채영주	youngju.chae@selu.edu
박환희	hwanheezoe@gmail.com
박현민	hyunmin.park@ucf.edu
이단이	lee5de@mail.uc.edu

CHOI, SINYONG

Korean Community and Criminal Justice | 최신용
 Schoi35@kennesaw.edu
 Kennesaw State University

박성민	seong.park@unlv.edu
박인선	ipark@uakron.edu
손지선	jiseun.sohn@sus.edu
이 강	glee18@kennesaw.edu
추태명	tae.choo@ung.edu
노혜선	hnoh@email.sc.edu

HAN, SUNGIL

Policing and Public Safety | 한성일
 shan27@charlotte.edu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rlotte

남용재	namyongj@msu.edu
김문선	mkim@brockport.edu
김 용	dyk1@iu.edu
백현인	h0baek01@nmsu.edu
이재승	leej23@nku.edu
임혜영	hyeyoung@uab.edu
전현정	hcheon@utep.edu
최형근	brightchoe99@gmail.com
김장원	jxk064@shsu.edu
임현정	ahlim@bu.edu
김윤식	yoongig@udel.edu
김소희	skim@wtamu.edu
최명현	myunghyunchoi@ucmo.edu

KIM, CHUNRYE

Women and Gender | 김춘례
 ckim@sju.edu
 Saint Joseph's University

김빛나	bitna.kim@shsu.edu
박인선	ipark@uakron.edu
조수정	sujung.cho@siu.edu

PARK, HYOUNGAH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riminal Justice | 박형아
 hpark1@saintpeters.edu
 Saint Peter's University

김문선	mkim@brockport.edu
김혜선	hkim3@worcester.edu
노혜선	hnoh@email.sc.edu
박성민	seong.park@unlv.edu
박인선	ipark@uakron.edu
백신철	Sinchul.back@scranton.edu
송주영	juyoung81@gmail.com
이승은	claire_lee@uml.edu
이인상	insang323@hanmail.net
이재승	jaeseunglee@miamioh.edu
전현정	hcheon@utep.edu
조수정	sujung.cho@siu.edu
채영주	youngju.chae@selu.edu
조병준	bcho@westfield.ma.edu
김해인	kim4h9@mail.uc.edu
강선혜	sxk106@shsu.edu
김장원	jxk064@shsu.edu
장광호	pathfinder@police.go.kr
김미진	mkim113@ilstu.edu

CHOI, SINYONG

Cyber Criminology | 최신용
 Schoi35@kennesaw.edu
 Kennesaw State University

김미진	mkim113@ilstu.edu
노혜선	hnoh@email.sc.edu
마이클 토로	marlonmike.toroalvarez@siu.edu
박기범	gbpakr1203@gmail.com
박인선	ipark@uakron.edu
백신철	sinchul.back@scranton.edu
신찬우	cwshin@bu.edu
이승묵	seungmug.lee@uta.edu
이승은	claire_lee@uml.edu
이재승	jaeseunglee@miamioh.edu
이한나래	h2lee@bridgew.edu
임혜영	hyeyoung@uab.edu
임에이미	lima18@univ.nevada.edu
정보라	bjj2@bu.edu
정소희	shjung2093@gmail.com
조수정	sujung.cho@siu.edu
최경식	kuung@bu.edu
추경석	kchoo@endicott.edu
장근호	yes3488@bu.edu
한치호	hanchi159@gmail.com



Korean Society of Criminology in America (KOSCA)

재미한인범죄학회

Korean Society Of Criminology In America

↔ Previous website



KOSCA.org

Contact Us:

Admin: Admin@kosca.org

Membership: Membership@kosca.org

Newsletter: Newsletter@kosca.org



[@kosca socialmedia](#)



[Socialmedia Kosca](#)



[@KOSCA2020](#)

다음 호에 게재할 원고(투고)는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newsletter@kosca.org

마감일: 2026년 8월 15일



KOREAN SOCIETY OF CRIMINOLOGY IN AMERICA

KOSCA

VOLUME 16 ISSUE 1
MARCH 2026

2026-2027 뉴스레터 편집위원회

최명현 김소희
이재범 고나영
박신의 신찬우

디자인 고나영